‘광장 세 대결’ 나선 여야…출구 없는 대치 언제까지

서초동→광화문→서초동, 여야 갈등 확대일로

국정감사 탐색전도 ‘조국’…曺 거취가 해법 될 듯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창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광장 세(?) 대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진보 세력이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자, 서초동 집회에 맞서 한국당이 3일 광화문 집회를 열고 지난 5일에는 양쪽이 동시에 서초동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갈등을 보이면서다.

조국 사태를 고리로 시작한 정치권 대립이 국회를 벗어나 장외로 번지면서 과시와 세 불리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 쪼개지면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몰두해 찬반 대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간 국론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전후로 시민들의 찬반 집회가 여야 정당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격렬해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은 바 있다.

여야는 탐색전 양상으로 치러진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공방을 지속했다.

국회는 지난 4일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전날(3일) 범보수 진영이 광화문 등에서 진행한 ‘文정부 규탄·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집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전날 광화문집회에서 ‘청와대 진격’ ‘문재인 체포’ 등의 표현들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내란선동 행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내란 음모·선동죄에 기초해 수사해 달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현장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제1야당이자 도심 집회 주요 주최 측이었던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에 대해 정부·여당이 민심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의 고발장 제출에 “국감 질의 중 고발장을 증인에게 제출하는 게 헌정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항의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를 감사했던 정무위에서도 조 장관 의혹 가운데 한 가지인 사모펀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했다.

야당의원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를 둘러싼 위법성 여부를 캐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문제를 거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현안 질의에 열을 올렸다.

교육위의 교육부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국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장학금·입시 특혜의혹을 놓고 ‘자료 요구’ 공방을 벌였고, 기재위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상속세 체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주말 간 장외 세 대결 이후 7일부터 재개되는 국감 중반전에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을 지속할 전망이다.

여당은 한국당이 먼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원내로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이 자진하여 사퇴하거나 파면이 되지 않는 한 장외투쟁을 거둘 수 없다는 각오다. 5일 진보진영의 촛불집회에 맞서듯 한국당에서는 오는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조 장관의 거취가 가시권에 들어와야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어느 한 쪽이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학규, 정동영 전철 밟을까…닮은꼴 향해가는 두 올드보이

바른미래당, 퇴진파 ‘변혁’ 구성에 분당설 무게

변혁 활동이 탈 분당 전지작업 평가…미니정당 축소 주장도

바른미래당이 퇴진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구성으로 분당설에 조금씩 무게가 실리면서 손학규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올드보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안팎에서는 변혁 활동이 탈·분당의 전지작업이라는 평가다. 유승민 전 대표가 변혁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전 대변인이 대변인을 맡았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변혁 활동의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한지붕 두가족 형태를 띄고 있지만, 탈·분당이 현실화되면 변혁 자체만으로도 한 정당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퇴진파 중심 축에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나서면서, 당내에서는 바른미래당 창당의 두 기둥이었던 두 전 대표가 탈당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내 상황이 이같이 진행되자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미니정당’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8~9월 손학규·정동영 두 올드보이는 당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현재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경력과 연륜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모두 사퇴 촉구에 시달렸다.

비교섭단체인 평화당은 먼저 분당 사태를 맞았다. 당내 과반 이상 의원들은 탈당해 대안신당(가칭)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화당은 정 대표를 포함 5명(바른미래 소속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 1명 포함)만 활동 중이다.

손 대표의 행보 역시 정 대표와 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퇴진파 소속 의원은 전체 24명(당원권 정지 비례대표 의원 4명 제외) 중 15명이다.

당권파 소속 의원은 현재 9명이지만, 당권파 내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손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마저 제외하면 당권파 의원은 4~5명 수준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대안신당과의 통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바른미래당 측에서 대안신당 내 일부 인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과 모두 함께 움직인다는 대안신당의 입장이 엇갈려 현실화 되긴 어려워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내년 초가 좋은 시기라, 당장 탈당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변혁 인사들이 당을 떠나면 손 대표는 거의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與 “안타깝다” vs 野 “北 몸값만 올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을 두고 여야가 일제히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어제 북미간 실무협상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의 협상으로 곧장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직행할 것이라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미 양측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여건 하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유한국당은 ‘빈손’ 협상을 지적하며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실무회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껏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며 “이제 경제정책 대전환은 물론 안보 및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을 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순위를 북한에 두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집권 3년 차에 이르는 동안 대통령의 행보는 북한의 핵 폐기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몸값만 올려주는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최도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북미 실무협상 결렬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70년간 쌓여 온 한반도 긴장과 적대관계를 해소하는데 있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유상진 대변인을 통해 “협상은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팽팽한 서로의 입장만 확인된 채 중단되어 실망이 크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평화당도 박주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오로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주동적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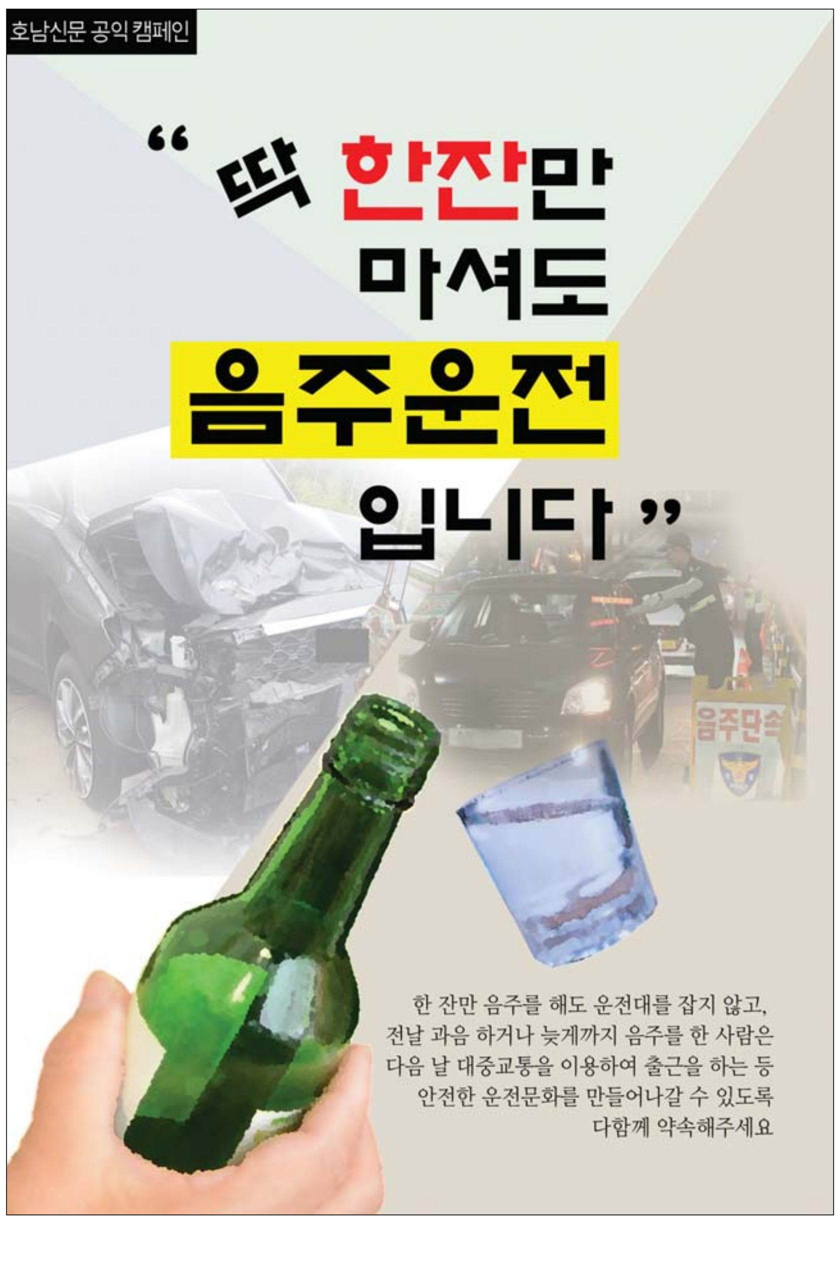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상 속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 3438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양 승 봉 (661223-1551913)
최 후 주 소 : 광주 동구 경양로 247번길 6, 305호(계림동)

위 망 양승봉 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0월 7일

공 고 인 : 양송이.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신유서로 25길 19, 102동 901호 (양평동 2가, 오목교투웨니퍼스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9월 30일
공고기간 : 2019. 10. 7~ 2019. 12. 7